



농림부

2007년도 농림예산 12조1,322억원

200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그 중 2007년도 농림예산은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도 농림부소관 재정지원 규모는 예산과 기금 총 운용액에서 회계간·계정간·기금간 내부거래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12조 1,322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2006년보다 2.2%가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재특회계 폐지로 농림부소관이던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예산(2006년 : 2,828억원)이 2007년부터 재정부 소관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으로 이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4.7%가 증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추진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AI는 최근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AI 유입경로 차단에 총력

을 기울이게 된다.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서 ▲중국·태국 등 AI 발생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다만, 제한적 수입이 허용되는 열처리된 가금육은 정밀검사 실시)하고, AI 비발생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관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AI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시스템으로서 ▲철새·뒷새 및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분변검사를 통해 국내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및 집중관리대상지역 닭·오리에 대한 철저한 임상관찰 등 조기검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에 조치할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접종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를 각 방역기관에 통보했다.

우리나라는 2003. 12~2004.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여 53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특집’ 50P 참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7915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

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 사육단계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축 사육단계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정책Ⅱ’ 89P 참조).

시행규칙 개정령안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법령정보 참조.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제도 시행관련 설명회 개최

축산물가공처리법(2006. 3. 24) 및 동법 시행령(2006. 9. 22)이 개정·공포되어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새롭게 도입된 축산물 포장유통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9일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관련 기관 담당관, 단체장, 도축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제도 시행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림부 담당관이 축산물의 포장유통을 위한 입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규정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 시행시기 및 포장유통 방법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다(‘정책Ⅰ’ 70P 참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농림부는 덴마크를 비롯 일본, 영국, 호주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이한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10월 16일자로 덴마크산·일본산·영국산·호주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또 덴마크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에는 ‘덴마크를 가금·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및 가금육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있다.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농림부로 제출(팩스 : 02-504-0908)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농림자료실)를 참조.

이상길 축산국장, 축산단체장과 현안 간담회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10월 18일 한국마사회 천마정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취임 후 첫 상견례 겸 조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축산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동향 및 대응 방안, 한미 FTA 축산부분 협상 동향, 소 브루셀라 발생 및 방역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HACCP기준원 설립 추진 상황, 동물용 항생제 절감 방안,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대책, 낙농산업 제도개혁 추진 상황 등 최근 축산현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축산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경감 차등지원방안 마련 중

농림부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중 28%를 농특회계 예산으로 경감지원(보건복지부 22% 추가경감지원으로 총 50% 경감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같은 경감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의 추진은 일정금액 이상의 농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함이 좋겠다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고, 농어업인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감지원(50%)하는 것은 경감지원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방안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현재 차등지원률에 대한 관련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농업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동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2007년중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한 후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 경감차등지원방안의 방향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

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연구 결과 수의학회 우수상 수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9월 27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2006년도 대한수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90편(구두 발표 11, 포스터 발표 79)의 논문을 발표했다.

검역원에서는 동물질병인수공통전염병 방제, 모니터링 연구분야 이외에 유전자칩 등의 첨단기술 응용한 질병진단, 축산물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조류질병과 정육미 연구사) 및 뉴캐슬병(조류질병과 전우진 연구사)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학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연구는 겨울철 철새도래지에서 분리한 H1형 바이러스의 분자역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동북아시아 유래이며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임을 규명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또한 뉴캐슬병에 대한 연구는 최근 유행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사용백신의 방어효과를 분석하여 기존 사용백신이 방어능이 있음을 밝혀 최근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효능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검역원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제역 등 국가재난에 속하는 큰 방역현안이 최

근에 없었으며 검역원이 2004년부터 우수연구실(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연구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연구혁신과 맞물려 얻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HPAI의 역학적 특성과 야생조류 감시활동’ 심포지엄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월 3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검역원 대강당에서 수의역학연구회 주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역학적 특성과 야생조류 감시활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역학’(건국대 송창선 교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성 및 축종별 감염역학’(강원대 성환우 교수),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동향 및 분리 바이러스의 특성’(검역원 김용주 박사), ‘우리나라 철새 도래 및 분포 동향’(환경생태연구소 이한수 소장), ‘철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시활동을 위한 역학적 기준 설정’(검역원 박지용 박사) 등 5개 연제를 발표한다.

수의역학연구회는 수의역학 분야의 전문지식 향상 및 관련정보의 교환을 통해 수의역학분석 기법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학습동아리로 지난 2005년 11월 설립됐다.

검역·검사 분야 소비자 단체 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식용축산물전용보관장인 강동냉장과 인천공항 검역탐지견센터 및 인천공항 CIQ에서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검역·검사분야 소비자 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비자 단체(8개 단체 등 26명 참여) 관계자에 대하여 검역원의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전반을 국경검역 현장에서 개최하여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및 국경검역업무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현황, 수입축산물 가공품검사, 수입식육의 잔류물질관리현황을 일선 검역현장에서 이길홍 담당과장 등이 직접 설명하고 토의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의 모든 참석자들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국경검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식용축산물전용보관장(강동냉장)을 방문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비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개봉검사, 시료채취 등 현물검사 상황 등을 통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체험하고 휴대축산물의 불법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검역탐지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탐지견들의 훈련상황과 실제 인천공항 CIQ에서 펼쳐지는 검역탐지견들의 탐지 활동모습에 대한 현장체험을 했다.

앞으로 검역원은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역검사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방안’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월 20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최근 개정사항 및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표시기준, 축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각 규정의 입안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축산물운반업·보관업·판매업 분야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25일부터 축산물수입판매업업신고 등 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검역원으로 이관돼 수입축산물에서 위해요인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위반유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관련업계는 위생관리에 취약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업체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정기교육 사항은 농림부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과 HACCP적용 품목확대 및 동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사육 단계에 HACCP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올해 돼지를 시작으로 2007년 한우, 2008년 젓소, 2009년 산란계, 2010년 육계 등 연차적으로 HACCP가 도입되며, 이를 위해 가축사육단계(돼지)에 대한 HACCP기준 도입을 위한 평가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지정

하는 업무를 담당할 기관(HACCP담당기관)을 지정해 HACCP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연구사업, 사후관리 등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물가공품 HACCP 평가기준 마련에 따른 지정 품목 확대, HACCP적용작업장 또는 적용업소 지정변경사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 등재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업무 수행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모든 업무가 일괄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처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는 농림부장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입판매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위해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규명 및 신속한 위해축산물 회수 등의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공포 6개월 후인 지난 9월 25일부터 발효돼 실질적인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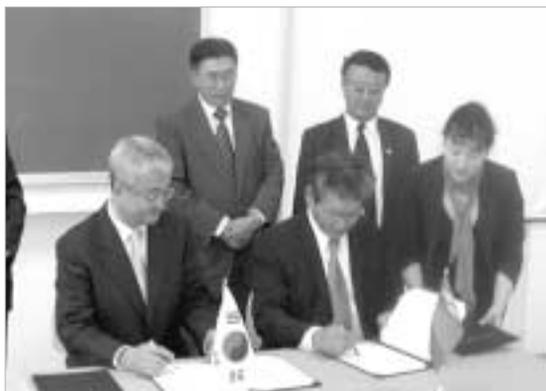
앞으로 신고접수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제, 신고필증 교부 순으로 3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업무수행 부서(5개 지원)〉

- 서울지원(전화 : 02-2650-0638, 팩스 : 02-2650-0695)
- 인천지원(전화 : 032-740-2655, 팩스 : 032-740-2658)
- 부산지원(전화 : 051-603-0672, 팩스 : 051-603-0679)
- 군산지원(전화 : 063-445-7348, 팩스 : 063-443-1013)
- 제주지원(전화 : 064-712-2762, 팩스 : 064-711-0525)

※ 관련 민원서식은 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 민원마당의 민원서식을 참고

한·몽골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월 2일 몽골 중앙수역검사소(소장 소돔다르자 박사)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공동협력에 관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구제역 등 수포성 악성전염병 진단기술 개발과 동북아시아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특성연구에 대하여 금년 10월부터 3년간 합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강문일 원장은 “이번 몽골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하여 국내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동북아 지역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들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동북아 전진연구기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몽골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이들 질병의 유행실태를 사전에 예측해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이 개발한 진단 및 예방기술을 몽골측에 제공함으로써 이들 질병에 대한 몽골의 가축위생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축산연구소

‘인삼 닭고기’ 생산 기술 개발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가 닭고기에 인삼사포닌이 함유된 ‘인삼 닭고기’ 생산 기술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이 기술은 인삼부산물로 사포닌 함유량이 높은 잎과 줄기로부터 추출한 액을 닭에게 급여할 경우 생리기능 및 면역능력이 증진되고 닭고기에 인삼사포닌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삼부산물 추출액을 닭에게 급여하면 평균 적혈구 용적 및 혈색소량이 증가해 심폐 및 면역능력이 향상되고 급여기간이 길수록 인삼사포닌 축적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병귀 가금과 연구사는 “이번 기술을 토대로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육계사업 계열화업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려인삼 닭고기’라는 고급 브랜드로 일본에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시범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주리대학과 연구협력협정(MOU) 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은 지난 10월 4일 미주리대학교 브래디 디튼 총장과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미주리대학과의 MOU 체결로 우리 연구원은 향후 5년 동안 공통 연구과제 수행과 상호 자료교환, 연구 관련 조사, 직원 훈련 교육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원장은 지난 10월 2일 캘리포니아 주립대 농업

문제연구소(AIC) 이사회 만찬에 초대받아 '한국농업의 현실과 과제'란 제목으로 만찬연설을 했다. 또 10월 6일은 미국 농업부 산하 경제연구소(ERS)를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농업정책에 있어서 농경연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코자 홈페이지(www.krei.re.kr)를 개편해 지난 10월 23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 7월부터 고객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들어가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회원의 참여공간과 연구자료 확충에 비중을 두었으며, 댓글 기능 도입과 회원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한다.

연구자료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매주 농업 분야 주요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들이 투고하는 'KREI논단'을 개설했으며, 또한 국내 농업현장 사례를 쉽게 요약 편집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앞서가는 농업현장'도 개설해 운영하고, '해외농업정보'도 보강해 제공한다.

특히 연구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VR)기법을 통해 연구원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사이버 안내

실'을 만들었고, 플래시로 제작한 연구원 홍보영상도 게시했다. '연구보고서'와 'KREI논단', '앞서가는 농업현장' 등의 메뉴에 회원이 참여해 의견을 달 수 있는 댓글 기능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대한양계협회

2006 전국종계부화인대회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중)는 오는 11월 7일~8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천안소재 상록리조트에서 '2006년도 전국종계부화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1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계산업 발전과 종계부화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계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 일시 : 2006. 11. 7(화) 13:30 ~ 8일(수) 11:20
- 장소 : 충남 천안시 수신면 소재 천안상록리조트 상록홀
- 참석대상 : 전국 종계부화인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 (02)588-7651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6 전국종계부화인대회 개최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김남철)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육가공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

로 '육류 품질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식품의 품질 및 위생에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육류의 생산 및 유통과정상 철저한 위생관리와 고품질 유지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육류업체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 등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 24일 충남 천안 시민문화회관 소 공연장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25일에는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중부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27일에는 대구 소재 경북 농업기술원내 농업인 회관에서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교육이 실시됐으며, ▲오는 11월 7일 전남 나주 소재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교육 내용은 ▲육류의 품질향상 대책(각도 축산과장) ▲육류의 취급요령(김용곤 박사) ▲육류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육류유통수출입협회) 등이다.

■ 문의 : (031)394-8147

(사)축산물HACCP기준원

초대원장에 곽형근 씨 선출

(사)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이 지난 10월 18일 농림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데 이어 24일에는 정부로부터 HACCP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음으로써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앞으로 기준원에서는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업무 위탁을 수행' 하게 되고 'HACCP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연구'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사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홍보(PR)' 'HACCP 지정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실습' 등 HACCP 평가관 교육·양성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수행'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축산물HACCP창립발기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30여개 축산관련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회원들은 정관 및 정관상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이사에는 당연직이사와 선출직이사로 하여 당연직이사에는 농림부 축산국장, 검역원장, 기준원장 및 전무이사,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한우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한국계육협회장, 대한수의학회이사장,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유가공협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으로 구성됐고, 선출직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감사에는 정영재 대한수의사회장과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회장이 선임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기준원 초대원장에 곽형근 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승인했다.

기준원의 조직은 평가국과 관리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가국에는 개발팀, 농장팀, 사료팀, 가공팀, 유통팀이 있고, 관리국에는 총무팀, 교육홍보팀 등 총 2국 7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인양과학대학 벤처센터 5층

■ 전화 : (031)465-6677(대)

■ 팩스 : (031)465-6697~8

농협중앙회

세계 5대 협동조합기관에 선정

한국의 농협중앙회가 매출액 기준 세계 5대 협동조합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10월 25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협동조합 국제포럼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본 전농과 전공련, 프랑스 꼬레디 아그리콜, 미국 전국상호보험회사(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에 이어 5위에 랭크되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협동조합기관이나 상호부조기관들은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성과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 공표되지 않았던 관계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간과되어 이번 조사결과는 세계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국민경제에서 협동조합이 기여하는 규모와 중요성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지난 10월 26일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바른 식습관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비만예방에 기여하고자 ‘바른 식생활로 키 쑥쑥 배 쑥쑥’이란 주제로 ‘대국민 영양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양교육 및 상담 - 2006 비만예방을 위한 무료 영양체험’ 행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가검진관, 체험교실, 이벤트관으로 구성됐으며, ‘자가검진관’에서는 체지방 측정 등 신체계측을 통해 비만을 판정했다. 또 ‘체험교실’은 세가지 테마로 운영됐는데 ‘제1체험교실-비만관’에서는 식습관 진단과 전문영양사 상담교육이, ‘제2체험교실-전시관’에서는 음식·간식의 칼로리, 설탕량, 지방량, 소금량 전시와 비만 예방을 위한 식사관리 패널이 전시됐으며, ‘제3체험교실-영양과 운동관’에서는 섭취한 열량만큼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지 체험하는 장이 펼쳐졌다.

‘이벤트관’에서는 ‘다트판을 이용한 영양퀴즈게임’, ‘비만예방 다짐을 위한 엽서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체험교육의 효과 판정 및 식생활 실천의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대국민 영양교육 자료인 어린이 식생활 실천지침 교육용 키 쑥쑥 배 쑥쑥 보드게임판이 부착된 비닐화일과 비만예방을 위한 저열량 요리 및 간식 레시피, 저열량 섭취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보급했다.

(사)한국자조금연구원

육계자조금 해법 찾기 축산기자 간담회 개최

(사)한국자조금연구원(이사장 박영인)은 지난 10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육계자조금 추진 3개 단체 및 대의원회 의장을 초청하고 관련 전문기자들과 ‘육계자조금 해법 찾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육계자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조금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부족과 타 축종과 다른 육계산업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1개 내지는 2개의 단체가 자조금을 추진하고 있는 타 품목과 달라 육계의 경우 양계협회, 계육협회, 농협 등 3개 단체가 추진하고 여기에 대의원회까지 가세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참석자들은 육계자조금의 출범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동추진단체간의 조건없는 양보와 함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도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대의원 총회가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닭고기 소비홍보 방송 실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 방송 홍보를 10월 27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 KBS 2TV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후'
방송일시 : 10월 27일(금) 12:15~13:30
- SBS 웰빙맛사냥
방송일시 : 11월 8일(수) 09:00~09:30

한국소비자연맹

'도축장 HACCP 운용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오는 11월 7일(화) 13:00~18:00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도축장 HACCP 운용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이항기 부회장의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건국대 류영수 교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축장 위생 발전방향' 충북대 모인필 교수의 '닭 도축장의 현황 및 문제점' 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호길 전무의 '안전한 축산물을 향한 도축장 HACCP 운용' 한국계육협회 김정훈 전무의 '도축장(닭) HACCP 운용 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가금학회

2006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강창원)는 오는 11월 10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06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